

第 7 次 日-韓 學術討論會

兩國의

# 非居住者の 納稅義務

(副題) 日本/稅理士法人制度 · 韓國 /誠實申告確認制度

日 時 : 2011/ 11/ 22(火)

場 所 : 近畿稅理士會會館

近畿稅理士會/釜山地方稅務士會

## 목 차

### I 회장인사

- (1) 긴끼세리사회 회장 /3
- (2)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5

### II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공동의제)

(일본)

- (1) 비거주자의 정의 /7
- (2) 국내원천소득의 유형 /13
- (3) 소득세 과세방법 /31
- (4)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방법 /35

(한국)

- (1) 비거주자의 정의 /43
- (2) 국내원천소득 /45
- (3) 국내사업장 /51
- (4) 과세방법 /55
- (5)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방법 /59

### III 세리사법인제도(부제/일본)

- (1) 제도의 개요 /65
- (2) 법인설립 /67
- (3) 법인의 사원 /73
- (4) 법인의 업무 /79
- (5) 법인해산 /85
- (6) 법인의 징계·벌칙 /87
- (7) 수입현황 /89
- 부록/한국 세무사법(세무법인편) /95

### IV 성실신고확인제도(부제/한국)

- (1) 도입배경 /111
- (2) 주요내용 /117
- (3) 확인 및 검토사항 /123
-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27
- (5) 관련법령 /135
- (6) 관련서식 /143

### V 질의응답

- (1) 한국측에서 일본측에 질문 /163
- (2) 일본측에서 한국측에 질문 /173

### VI 요약발표문 /181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긴끼세리사회 회장 미야타 요시미 입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노태주 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 일본에 와 주시고 오사카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지난 3 월 11 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의연금을 보내주시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일본세리사연합회를 통하여 토호쿠세리사회 소속 회원 중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전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귀 회와 당회는 1991 년 우호친선합의서에 조인하였고 2005 년도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 7 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으며 요청의제로서 귀 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당 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세리사법인제도와 그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이 학술토론회가 양 회를 상호이해하고 우호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노 회장 및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융성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년 11 월 22 일

긴 끼 세 리 사 회

회 장 미야타 요시미

## 會長人事

늦가을의 香氣가 무르익은 오늘 學術討論會를 통해 貴會를 訪問하게 된 것을 우리 釜山地方稅務士會 會員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學術討論會는 저가 2003 年 釜山地方稅務士會 副會長으로 在職할 당시 兩國의 租稅 및 稅務士 制度에 대한 學術討論을 開催하고자 提案하였던 것이 오늘날 兩國間의 理解增進과 稅政에 대해 相好 情報를 交換하는 契機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6 차례의 相互訪問 學術討論會를 통해 貴國의 先進화된 租稅 및 稅務士制度에 대해 많은 有益한 情報를 交換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持續的으로 이러한 學術討論會를 통해 兩國의 友好와 親善, 平和增進에 寄與하고, 稅務士制度和 租稅制度의 共同研究와 情報交換을 통해 稅務士制度의 世界化에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世界는 하나의 巨大한 市場으로 變해가고 있으며 새로운 形態의 競爭을 强要 당하고 있습니다. 이 冷嚴한 世界秩序 속에서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가 갖고 있는 知識과 情報를 交換하고 協同할 때에 難關을 克服하고 發展이 期約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兩國은 地理的 接近性과 文化的 同質性, 그리고 情緒的 類似性에 비취 볼 때 同一한 方向을 指向해 나아갈 수 있는 可能性을 充分히 갖고 있으므로 兩會의 友好協定에 바탕을 둔 學術討論會는 長足の 發展이 期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世界化는 過去 門戶開放의 水準이 아니라 마치 世界가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現象이 到來한 것입니다. 따라서 租稅問題 또한 國際租稅를 理解하지 못하면 解決할 수 없을 것이며, 稅務士 市場도 國際間의 開放이 必할 수 없는 現實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國際潮流에 賢明하게 對處하기 위해 우리 兩會는 더욱 굳건한 結合과 緊密한 協力이 要望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租稅專門家인 專門職業人으로서 時代的 使命感과 責任意識을 가지고 不斷한 研究와 努力으로 그 職務를 充實히 遂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近畿稅理士會 任員 및 會員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립니다.

貴會의 無窮한 發展과 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드립니다. 感謝합니다.

2011 年 11 月 22 日

釜山地方稅務士會  
會長 盧 泰 珠